

## 시적 담론에 대하여

구 모 룡\*

### On Poetic Discourse

Mo - Ryong Gu

I. 머리말	III. 서정 담론과 반서정 담론
II. 시적 담론에 대한 규정	IV. 시적 담론의 장

#### I. 머 리 말

이 글은 시적 담론의 존재양식을 밝히려는 목적에서 씌어진다.

우선 '시적인 것'에 대한 개념규정을 앞세우고 다음으로 시적 담론이 형성되는 과정을 살핀다. 특히 이 과정은 시적인 것의 문제가 서정의 문제와 동일한 지평 위에 있다는 점에서 서정의 존재양식을 밝히는 일을 포함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담론이 형성되고 이것이 실천되는 과정이 언어영역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동태적인 장(場)의 문제를 고찰한다.

이를 통하여 본고는 시적인 것을 본질주의로 환원시키는 전통적인 해석학적 입장이 지닌 한계를 반성하면서 문학연구가 담론적 실천의 장을 떠나서 이루어질 수 없음을 말하고자 한다. 물론 이러한 필자의 입장에서 본고가 새로운 이론을 구성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시적인 것이 담론으로 형성되는 과정과 그것이 문학적 장 속에서 나름의 지위를 갖는 배경을 문제 삼음으로써 시학의 새로운 가능성을 시사하고자 한다.

\* 한국해양대학교 교양과정부 전임강사(한국 현대문학 전공)

## II. 시적 담론에 대한 규정

언어를 지시하고자 하는 의미를 투명하게 실어 나르는 도구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다. 왜냐하면 모든 언술은 말하는 사람의 입장이나 의도 그리고 말이 전해지는 조건과 상황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같은 '자유'라는 단어도 이 말을 누가 어떤 조건에서 말하느냐에 따라 의미가 달라진다. 부두 노동자와 가정 주부와 기업가 그리고 정치가가 이 말을 사용한다면 제각기 다른 의미를 나타낼 것이다. 또한 같은 정치가의 경우에 있어서도 그들의 입장에 따라 서로 다른 지향과 가치를 보일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동일한 일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경우에 있어서조차 입장과 조건의 상이함이 그 말의 의미를 다르게 만들 것이다. 나아가서는 같은 말이라 하더라도 그 표현적 억양을 어떻게 전달하느냐에 따라 다른 사회적 가치를 보이게 된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언어가 지닌 사회적 성격을 충분히 인식하게 된다. 그러므로 말은 사회적인 것이며 나아가서는 뛰어난 이데올로기적 현상이 된다<sup>1)</sup>.

담론 이론은 언어의 이러한 사회적, 이데올로기적 성격에 주목한다. M.바흐첸이 말하듯이 "마을의 바느질 집단들, 도시의 술자리들, 노동자들이 점심시간에 하는 잡담 등은 모두 나름대로의 형식을 가진다. 각각의 상황은 사회적 관습에 의해 고정되고 유지되며 특정한 청중이 조직되도록 한다."<sup>2)</sup> 이처럼 담론들은 그것이 형성되는 제도와 사회적 실천의 종류에 의해, 그리고 말하는 사람들과 그들이 말을 하는 상대의 위치에 따라 모습을 달리 한다<sup>3)</sup>. 그래서 서로 다른 담론들은 상이한 체계와 형식을 지니게 된다. 담론 이론은 담론과 관련된 제도와 그것이 유래하고 화자를 특징짓는 입장과 다른 담론과의 관계 및 이러한 관계를 통해서 형성되는 효과에 관심을 갖는다<sup>4)</sup>.

여기서 우리는 '시적'이라는 담론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무엇이 시적인가? 이러한 질문에는 벌써 '시적인 것'에 대한 규정이 가정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질문은 이미 모순을 안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억을 더듬어 '시적인 것'에 대한 답을 찾아내고자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럴 때 떠오르는 것은 기정 사실화되어 있는 개념이다. 그러나 이 개념은 문학교육 제도에 의하여 특정의 이데올로기 집단이 제도적으로 부여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가령 '시적인 것은 순수한 인간 경험이나 인간 본성을 정서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누군가 정의하였다고 하자. 그리고 이러한 정의는 우리가 가장 손쉽게 접할 수 있는 것에 속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러한 정의는 순수한 인간 경험이나 인간 본성과 같은 것이 인식 가능한 무엇으로 존재한다는 가정을 전제하고 있고 그래서 그것이 무엇인지, 나아가서는 인간이

1) M.바흐첸외(송기한역),『마르크스주의와 언어철학』(한겨레,1988). 참고.

2) D.맥도넬(임상훈역),『담론의 이론들』(한울,1992), p.11. 재인용.

3) 같은 책, p.11.

4) 같은 책, p.16.

무엇인가 하는 근본적인 의문을 남기게 된다<sup>5)</sup>. 이처럼 일반화되어 있는 '시적인 것'에 대한 정의는 인간은 모두 같고, 이렇게 같은 인간의 본성을 표현하는 것이 시라는 이상한 의미 관련성을 나타내게 된다. 어떻게 모든 인간이 같을 수 있는가? 앞서 보인 시적인 것에 관한 정의는 사회적인 여러 불평등, 즉 계급, 성, 지식, 권력 등의 강요된 불평등을 은폐하며, 이러한 불평등에 대한 인식을 봉쇄하는 담론이라 할 수 있다<sup>6)</sup>.

그렇기 때문에 '시적인 것'에 대한 모든 정의는 불변의 의미를 지닌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가변적인 담론에 지나지 않는다. P.마셔레이도 말했듯이 시를 포함하여 <문학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은 이미 오류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앞서서도 말했듯이 이 질문에는 이미 대답이 포함되어 있다. 이 질문은 문학은 그 어떤 것, 말하자면 문학은 하나의 실체로서, 곧 어떤 본질을 가진 영원하고 불변적인 실체로서 존재한다는 것을 함축하고 있는 것이다<sup>7)</sup>. 그러나 문학은 하나의 실체가 아니다. 그것은 상대적으로 자율적인 실천이자, 자체의 물질성과 법칙과 역사 속에서의 위치에 따르는 담론들이다. 물론 문학이라는 것이 담론으로 구성되는 것이라는 견해가 사람들이 문학을 아무렇게 규정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T.이글턴이 지적하듯이 개인적인 변덕과 무관한 것이다. 중요한 것은 문학을 구성하는 가치판단들이 역사적으로 가변적이라는 사실과 이러한 가치판단 자체도 사회의 이데올로기들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다<sup>8)</sup>. 따라서 '시적인 것'은 사회적 역사적인 담론 실천을 통해서 형성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시적인 것에 대한 담론 분석은 우선 전통적인 '해석'에 대한 부정이라 할 수 있다. 전통적인 문예학은 M.푸코가 '주석적'이라고 정의한 방법에 의존하였다<sup>9)</sup>. 이 방법은 항상 근원이나 원천으로 환원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가령 시적인 것을 해석함에 있어서 이것의 해석 가능성과 근본적으로 풀릴 수 없는 것을 가정한다. 즉 풀릴 수 있는 현상의 배후에 기원, 본질, 실체 등을 가정하는 것이다. K.M.보그달같은 이는 이러한 전통적 문예학의 해석주의가 우리 시대의 문학적 위기를 불러왔다고 지적한다<sup>10)</sup>. 전통적인 문예학이 결코 증명될 수 없는 근원, 중심, 원천, 본질, 실체 등을 가정함으로써 문학을 신비화했기 때문이다. 그는 오늘날의 문학(그의 경우, 독문학에 한정된다)의 위기를 불러온 대표적인 문예학자로 『시학의 근본개념』의 저자 E.스타이거를 든다. E.스타이거의 본질 시학이 '시적인 것'의 역사성, 사회성을 묵살함

5) 이러한 견해는 인문학사에서 여전히 통용되고 있는 지배적인 휴머니즘 담론의 한 예이다.

6) D.맥도넬, 앞의 책, p.17.

7) P.마셔레이는 '문학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지닌 잘못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왜냐하면 그 질문은 이미 대답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질문은 문학은 그 어떤 것, 말하자면 하나의 사물로서, 곧 어떤 본질을 가진 영원하고 불변적인 사물로서 존재한다는 것을 함축하고 있다. T.베네트(임철규역), 『형식주의와 마르크스주의』(현상과인식, 1983), p.173. 재인용.

8) T.이글턴(김명환외역), 『문학이론입문』(창작과비평사, 1988), p.26.

9) K.M.보그달(문학이론연구회역), 『새로운 문학이론의 흐름』(문학과지성사, 1994), p.38.

10) 같은 책, pp.16-17.

으로써 시와 독서의 전통적 지위를 상실하게 하는 데 일조했다는 것이다<sup>11)</sup>. 이러한 K.M.보그달의 견해는 우리에게도 타산지석으로 받아들여져야 할 것이다. 문학의 위기가 운위되는 우리의 현실에서도 문예학은 여전히 전통적인 해석학의 수준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통적인 해석학적 문예학과 함께 우리 시대의 문학적 위기를 조장하고 있는 것은 과학주의이다. 이것은 시적인 것의 가변성을 체계적으로 거부함으로써 시적인 인식의 특수성을 부정한다. 이것의 '그릇된 정확성'도 문예학의 고립에 기여하게 된다<sup>12)</sup>. 전통적인 해석학적 문예학이나 새로운 과학주의적 문예학은 모두 문예학적 제도 속에 고립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제도권 밖의 문예학적 가능성들을 거부함으로써 문학의 위기라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낸 것이다. 문학에 대한 본질주의, 신비주의 뿐만 아니라 그것에 대한 과학주의를 만들어냄으로써, 상반되어 보이는 두 지향은 결국 문학적인 것의 본질 혹은 시적인 것의 본질을 가정하고 그것에 환원되게 된다. 담론 분석은 이러한 경향에 대한 반발이며 동시에 시적인 것의 사회성과 역사성에 주목함으로써 문학이 처한 상황을 타개하려는 이론적 전략과 목표를 내재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다.

### Ⅲ. 서정 담론과 반서정 담론

그렇다면 이제 논의의 중심으로 돌아와 시적 담론의 분석은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구하여야 할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담론을 규정되지 않은 언술들의 덩어리'로 정의하여 언술들과 담론의 관계를 총위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언술은 단순한 언어 기호가 아니라 언어 기호들이 시간과 공간 속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나타나도록 해주는 기호의 존재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담론은 이러한 언술들이 하나의 동일한 구성 체계를 형성하는 것을 뜻한다<sup>13)</sup>. 가령 다음과 같은 한 구절의 표현을 예를 들어 분석해 보자.

들맹이 같은 아기 낳으면

이러한 구절이 언술인가, 언술이 아닌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언술을 충족시키는 조건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언술에 어떠한 내용이나 의미가 부여되기 위해서는 1)객체를 형성하는 지시 체계(대상성) 2)표현 유형을 형성하는 언술자의 위치(주체 위치) 3)개념을 형성하는 언술 영역 4)전략을 형성하는 물질적 존재(물성)의 네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sup>14)</sup>.

지시 체계는 언술들이 관계맺는 대상들의 영역을 말한다. 위에서 인용한 구절은 우선, 출

11) 같은 책, p.18.

12) 같은 책, pp.28-29.

13) 같은 책, p.40.

14) 이지은 편, 『지식과 권력』(한울, 1991), pp.10-11. 그리고 K.M.보그달, 앞의 책, pp.41-45.

산과 관계된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돌맹이 같은'이라는 표현은 바보같은 혹은 머리가 나쁜, 등의 의미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정치적 대화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물론 시작품에 나올 수는 있는 것이다. 만약 시 속이라면 일반적인 출산에서 의미하는 것과는 뜻을 달리 할 것이다. 요컨대 이처럼 언술의 지시 체계는 한정되어 있다. 이 말이 사용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이 제약된다는 뜻이다. 언술자의 위치는 상이한 개인들의 입장에서 비롯된다. 가령 위의 인용이 임신부의 언술이라면 개인적인 고민과도 관련된다. 이럴 때 개인적인 사정, 즉 저능아나 미숙아를 낳지 않아야 한다는 개인적인 염려와 관련하여 언술의 주체 위치는 그 자신만의 것이 된다. 달리 이것이 산부인과 의사의 것이라면 그가 속한 집단의 관심사와 무관하지 않다. 또한 이것이 시인의 언술이라면 다른 의미를 갖게 될 것이다. 즉 주체의 위치는 언술 표현의 유형을 결정한다. 그리고 이것은 언술 영역과 관련될 때 분명하게 된다. 언술 영역은 문맥context과 유사한 개념이다. 인용한 표현이 시인 장석남의 「그리운 시냇가」의 한 구절이라는 사실은 인용한 구절의 의미를 찾는 데 많은 도움을 준다. 그가 90년대의 서정시인 그룹에 속한다는 사실이 보다 많은 의미들을 해석할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언술 영역은 저자만을 뜻하지 않는다. 무엇보다 하나의 표현이 다른 표현들과 어떠한 연관 관계를 통해 언술로 구성되는가를 찾아내는 것이다. 이 경우 언술 관계란 시의 각 행(연)들과의 관계를 말한다.

내가 반 웃고  
 당신이 반 웃고  
 아기 낳으면  
 돌맹이 같은 아기 낳으면  
 그 돌맹이 꽃처럼 피어  
 깊고 아득히 골짜기로 올라가리라  
 아무도 그곳까지 이르진 못하리라  
 가끔 시냇물에 붉은 꽃이 섞여내려  
 마을을 환히 적시리라  
 사람들, 한잠도 자지 못하리  
 (장석남, 「그리운 시냇가」)

이러한 언술 영역의 확인으로 앞서 말한 지시 체계나 주체 위치는 자세하게 규정되는 것이다. 그리고 앞서 인용된 '돌맹이 같은 아기 낳으면'이 보다 분명한 의미 관련성을 얻게 된다. 즉 이 시는 순수한 만남과 축제의 삶이 가능한 세계에 대한 동경을 표현하고 있다. 물론 이 시의 풍경은 오늘날 없는 것이고 과거부터 전해오는 '무릉도원'을 연상하게 한다. 그러므로 '돌맹이 같은'이 함축하고 있는 의미는 단순하지가 않다. 그것은 무능과 저능을 뜻하기보다 자연의 순수한 자발성을 뜻하게 된다. 이 시는 이러한 자발성이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즉 '돌맹이'는 상승하여 '꽃'이 되고 다시 꽃잎으로 하강한다. 이러한 상승과 하강 속에 새로운 삶에 대한 꿈이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 시의 언술 영역을 확인함으로

써 앞서 인용한 '돌맹이 같은 아기 낳으면'이 산부인과 의사의 진료 기록으로 적합하지 않음을 알 뿐만 아니라 이것이 장석남의 시 속에서 상당한 의미를 자아내고 있음을 알게 된다. 또한 이 구절이 다른 시인의 시 속에 포함되어 있다면 또 다른 의미를 만들어낼 것임을 가정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언술은 물질성을 갖게 된다. 이러한 물질성은 곧 시인이 세계를 서정적인 문맥 속에서 재해석하고자 하는 담론 전략과 무관하지 않다.

또 다른 예를 분석해 보자.

빵 내리치는 주먹

우선 이러한 표현이 지시할 수 있는 대상을 찾으면, 아마 누군가 화가 나서 책상을 내리치는 것을 연상할 수 있다. 어느 사무실이거나 아니면 경찰서 취조실 같은 곳인지도 모른다. 어느 곳이든 상급자 혹은 힘을 지닌 사람이 아랫사람 혹은 힘없는 사람 앞에서 보이는 행동이거나 무엇인가 화가난 사람이 화풀이를 하고 있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시적 언술로 보는 것은 일단 넌센스에 가깝다. 왜냐하면 인용된 구절이 한정하고 있는 지시 체계가 시 작품 속에서 표현 가능한 것으로 보이게 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이 언술의 주체 위치를 살펴보면 우선 객관적인 관찰자의 입장에 있음을 알게 한다. 언술자가 하급자이거나 힘없는 자로서 지금 문초를 당하고 있는 위치일 수도 있고 제 3자로서 이 일을 관찰하고 있는 자일 수도 있다. 어느 쪽이든 주먹을 내리치고 있는 사람의 위치에 있지는 않다. 따라서 어떤 상황에서의 피해자 혹은 그 상황에 대한 관찰자의 입장이다. 이러한 언술이 지시하고 있는 대상이나 언술자의 위치가 보다 분명하게 되는 것은 언술 영역이 밝혀질 때이다. 우선 이것이 황지우의 시 「대답없는 날들을 위하여 3」에 나오는 한 구절이라는 사실로써 지금까지 우리가 가졌던 생각은 상당히 역전된다. 가장 큰 역전은 지시 체계의 역전이다. 이것은 비시적이라고 생각한 것이 엄연히 시 속에 들어와 있게 된 것에서 비롯된다. 언술 영역의 확인에서 우리는 이러한 표현이 동시대의 박남철이나 박노해 등의 시 속에도 나올 수 있는 것이라는 아량을 갖게 될지도 모른다. 저자를 알게 되면 그 만큼 문맥이 확대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러한 표현이 어떠한 언술 관계 속에 놓여 있는가를 밝히는 것이다.

그때 거기서 나는 웃었다  
이름을 대고 나이와 직업을 대고  
빵 내리치는 주먹  
떨어지는 국화꽃잎 아래서  
그때 거기서 나는 웃었다  
침의 물이 근엄한 近影에 튀었다  
쓰레기통에서 자기 그림자를  
파먹는 미친 개 같애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默示의 물 우에 꽃잎 몇 개가  
 헛바다처럼 떠 있었다  
 (황지우, 「대답없는 날들을 위하여 3」)

시의 전문을 통하여 우리는 분명한 문맥을 얻는다. 이 시는 경찰 취조실에서 취조 받을 때의 경험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뺨 내리치는 주먹'은 그러므로 언술 주체가 피의자의 입장에서 바라본 것이다. 그런데 이 시에서의 피의자는 결코 죄의식을 갖고 주눅들어 있지 않다. 이것은 '그때 거기서 나는 웃었다'라는 언술의 반복이나 '근엄한 近影'으로 상징되는 권력자를 '미친 개'로 생각하고 있는 데서 잘 드러난다. 그래서 '뺨 내리치는 주먹'이 부당하게 느껴진다. 이러한 상황은 적어도 7,80년대 한국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 시는 하나의 구체적인 상황을 서술함으로써 언술 주체의 환멸의 정서를 표출한다. 언술 주체의 환멸의 정서는 상황에 대한 비웃음에서도 나타나고 '默示의 물 우에 꽃잎 몇 개가 / 헛바다처럼 떠 있었다'에서 더욱 구체화된다. 이 시가 보이는 환멸의 주체성은 기존의 시적 언술이 지닌 동일성의 원리를 부순다. 이 시는 오히려 비시적이라고 말해질 수 있는 상황을 동원하여 오히려 시적 혁신을 가능하게 한다. 이것이 이 시가 지닌 언술의 물질성이다. 이러한 물질성은 곧 해체주의적 담론 전략과 이어진다.

지금까지 우리는 장석남과 황지우의 시를 통하여 시적 담론을 해체-재구성해 보았다. 우리는 이 두 편의 시가 지닌 언술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시적 담론이 구성되는 양상을 살핀 것이다. 그런데 담론 분석은 하나의 텍스트가 지닌 언술 관계의 분석에 그치지 않는다. 그것은 여기에서 나아가 담론들 간의 관계를 살핌으로써 완성된다. 여기서 우리는 상이한 시적 담론이 가지는 효과, 그들을 형성하는 정치적 관계, 그런 담론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취하는 입장들에 주의를 기울이고, 또 이 담론들이 다양한 제도와 갖는 관계를 탐구하여야 하는 것이다.

우선 장석남의 시가 지닌 담론 전략을 우리는 서정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가 보인 서정이 본질 회귀로 귀착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인용한 시에서 보이듯 그의 서정은 사람의 마을로 되돌아 온다. D.아도르노가 지적했듯이 서정적인 것은 근대적인 삶에 반립하는 지향을 지닌다. 그것이 순수하면 할수록 불화의 순간을 그 자신에 내포하기 때문이다<sup>15)</sup>. 그렇지만 지양없이 자연의 동일성으로 회귀하고자 하는 것은 근대적인 삶의 모순으로부터 단순하게 등돌리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오히려 자연을 잃어버린 자아의 자연 재생이 서정적 전략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적어도 장석남은 이러한 시적 전략을 지녔다. 그렇기 때문에 본질 회귀의 서정 전략과는 다른 '신서정'의 전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본질주의적 시적 전략은 시Poetry를 하나의 움직일 수 없는 중심 혹은 근원으로 보고, 모든 시 작품들poems은 이러한 중심 혹은 근원으로서의 시에 대한 주석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15) D.아도르노(김주연역), 『아도르노의 문이론』(민음사, 1985), pp.16-22.

로 인식한다. 시 작품들은 항상 현상을 넘어서 중심과 근원으로 환원된다. 적어도 이러한 관점은 우리(동양인)에게는 가장 오래되고 해묵은 것이다. 시를 위계의 정점에 두는 이러한 담론은 전통사회의 세계관, 질서관에 상응한다. 개인의 자유에서가 아니라 천지(우주)의 이치에서 삶의 원리가 찾아진다<sup>16)</sup>. 개인과 우주의 관계는 제유적인 해석 원리로 설명되며 개별성은 전체성과의 내적 연관 속에 복속된다<sup>17)</sup>. 이러한 제유적 해석 원리에 의하면 시는 자연에 개재된 원칙들의 표상이 되고, 시 창조의 궁극은, 우주와 협력하여 화육에 참여함으로써 천인합일의 도를 깊이 체득하고 서로 화합하여 함께 변화하여서 똑 같은 창조를 드러내는 것이 된다. 여기서 우리는 본질주의와 형이상학과 만나게 된다. 전통적인 미학에서 모든 문학 작품은 초월적 기의를 언급하는 기표라 할 수 있다. 이것은 생명적 형식으로서의 문학 작품을 생각할 때마다 언제나 그 근원에게서 거슬러 올라가서 본래의 근원을 찾으며, 그 뒤에 천명에 의하여 분배받은 본성을 언급한다. 물론 이것은 서구적 이원론이 지닌 선형적 환상과 다르다. 모든 것을 내재적인 연관에서 인식하기 때문이다. 근원으로서의 우주는 실재화될 수도 없고, 초월적 존재로 될 수도 없으며 추상화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유기화된 전체로서의 도이며 본질과 형식의 이분법과 결합될 수 없다. 이것은 만물의 원칙이며 모든 존재의 전체이고 초월성과 내재성, 실체성과 원리성의 즉자적 무매개적인 결합이다. 그러나 이것은, 제일의 원인, 절대적인 기원이 가정되어 다른 모든 의미의 체계가 이것에 의존해서 구성되어지는 사유형태로서, 형이상학에 속한다<sup>18)</sup>. 서정의 본질주의 담론은 이러한 전통적인 사유형태를 오늘날 그대로 보존하고자 하는 전략에서 비롯된다. 그러나 이러한 담론은 근대적인 것과의 관련에서 의의 있는 창조성을 만들어 내지 못한다.

장석남의 시를 이러한 본질주의 혹은 형이상학의 서정 담론으로 보아서는 안된다. 그의 서정시는 근대적인 삶으로부터 등을 돌리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고자 하는 것이다. 그의 서정은 서정 본래의 돌아봄[회감]의 의식을 바탕으로 하면서도 '돌아 보고, 다시 미래를 생각함'이라는 전략을 펼친다. 이러한 서정 담론을 우리는 신서정주의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신서정주의는 90년대적인 상황 속에서 생성하고 있다. 이것은 20세기말에 처한 현대의 시점에서 근대주의 이데올로기에 대립한다. 이러한 대립을 통하여 이것은 근대주의가 지닌 부정적인 힘을 되돌려 놓고자 한다. 특히 근대주의의 물질 우위 사상과 생산력 신봉이 파괴적인 힘을 지녔다는 인식이 전제된다. 근대주의는 세기말인 90년대에 이르러 전지구적인 차원에서 반성의 계기를 얻고 있고, 특히 우리 문학의 상황 속에서 그것에 대한 반성의 계기가 충분히 주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sup>19)</sup>. 이러한 담론 조건 속에서 신서정주의는 하나의 새로운

16) 劉若愚(이장우역), 『중국의 문학이론』(동화출판공사, 1984), p.57.

17) K.Burke, A Grammar of Motive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69), pp.503-517. 그리고 H.화이트(천형균역), 『메타역사』(문학과지성사, 1991), pp.47-55.

18) 전통적인 유기론적 미학의 본질주의에 대한 것은 구모룡, 『한국문학과 열린 체계의 비평담론』(열음사, 1992), pp.17-25.참고.

19) 구모룡, 「시와 근대성의 문제」, 『어문교육론집』 13,4 합집(부산대학교 국어교육과, 1994) 참고.



흐름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며, 문학의 제도적인 장 속에서 그것이 지닌 상징적 자산<sup>20)</sup>이 평가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제도적인 평가 속에서 신서정의 담론 계보가 형성된다.

장석남과 달리 황지우는 반서정의 담론 전략을 보였다. 그는 시적이라는 혹은 서정적이라는 기존의 통념에 반발함으로써 오히려 시적 확장을 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시적 확장의 담론을 우리는 흔히 해체주의라고 한다. 그의 해체주의 담론은 그 스스로 '끔찍한 근대성'이라고 한 바 있는 80년대적인 상황에 대한 시적 응전에서 비롯된다. 이러한 응전에서 그는, 기존의 형식이나 문법이 기존의 이데올로기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파괴해야 한다는 '파괴의 양식화' 전략을 구사한다. 이러한 점에서 그의 해체주의는 대항담론<sup>21)</sup>이다. 그는 모든 다른 담론들에 대항하면서 자신의 존재를 가혹하게 확인하는 방법으로 시를 선택한다. 그러나 이러한 대항 담론은 한계를 지니게 된다. 그 한계는 시적 자율성을 극단화함으로써 시적 가능성의 미래를 전부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에 기인한다. 그러므로 해체주의로부터의 황지우의 회귀는 미리 예정되어 있었던 일이라 할 수 있다. 시가 궁극적으로 무정부적인 소멸점이 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황지우가 자신의 시적 담론에서 배제의 법칙으로 서정적인 것을 제외하려고 했던 것들이 그의 후기시(『계륜 속의 연꽃』 이후)에서 되살아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지적이 앞서서도 말했듯이 황지우의 한계를 의미하지 않는다. 80년대의 해체주의는 대단히 중요한 시적 담론이었고 따라서 충분한 평가와 함께 제도적인 뒷받침을 얻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80년대 후반의 황지우의 회귀는 반서정적 전략과 서정적 전략이 결국 하나의 변증법을 이룰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인 사건이라고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 IV. 시적 담론의 장

시적인 것이 하나의 실체가 될 수 없음은 이제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그것은 담론 관계에 의해 파악될 성질의 것이다. 또한 문학적 담론이 그 자체로서 존재하기보다 비담론적인 여러 요소들과 얽혀 그 나름의 권력을 얻는만큼 문학 담론에 대한 분석은 보다 포괄적이고 열린 관점을 요구하는 것이다. 가령, 80년대의 해체주의나 민중주의의 퇴조를 시적 상황만의 변화로 볼 수 없는 것이 그 한 예가 된다. 이것은 여러 가지 조건들의 변화와 이러한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담론 연합<sup>22)</sup>에 의한 것이라 할 수 있다. 90년대 들어 앞서 언급한 신서정주의가 하나의 큰 흐름을 이룬 것이나 도시주의가 또 하나의 흐름을 이룬 것은 보다 엄밀한 담론 관계의 분석이 있어야 하겠지만 우선, 일단의 비평가, 출판업자, 저널리스트 등의 담론 연

20) P.Bourdieu, *The Field of Cultural Production*(Polity Press, 1933), pp.29-73.

21) K.M.보그달, 앞의 책, p.48. 푸코는 대항담론의 예를 초현실주의 시에서 구하고 있다.

22) K.M.보그달, 앞의 책, p.52.

합이 작용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시적 담론의 분석은 P.부르디외가 말한 문학의 장이라는 개념을 포함할 때 진정한 의미의 담론 변증법이 가능할 것이다<sup>23)</sup>. 따라서 P.부르디외의 문학의 장 이론을 덧붙여 설명하는 것이 유익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시적 담론의 생산과 소비가 자본주의 시장 경제 원리를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자본의 논리는 우리가 숨쉬는 공기와 같이 모든 수준의 삶에 함께 하기 때문에 시 영역에 있어서도 이러한 자본의 규정성은 피할 수 없는 것이다. 시의 장은 시 생산과 소비를 둘러싸고 형성되는 여러 입장들이 구조화된 공간을 의미한다. 이 장에서는 서로 다른 힘을 지닌 행위자들과 기관들이 특수한 이윤을 차지하기 위해 이 공간을 구성하는 규칙에 따라 투쟁한다. 시의 장을 지배하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이익이 되도록 그 장을 작동시킬 수단들을 가지고 있으며 자신들의 권력을 영속시키려는 노력을 계속한다. 그래서 합법적인 권위의 독점, 다시 말해 특정 자본의 분배 구조의 전복 혹은 보존이 이루어진다. 정통성의 전략이나 이단의 전략 혹은 인정 투쟁(예로 들어 신세대문학론)은 시의 장에서 항상 발생한다. P.부르디외가 말하듯이 모든 장에는 입회권의 빗장을 부수려고 애쓰는 신참자와 독점을 옹호하고 경쟁을 배제시키려는 지배자 사이의 투쟁이 있게 마련이다<sup>24)</sup>.

그리고 이러한 장에는 이것을 작동하고 운영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다름아닌 문학 생산자, 출판자, 비평가, 독자, 문예학자 들이다. 문학 작품은 일종의 밀폐된 공간에서 씌어지고 나중에 출판자와 수용자를 찾는다는 전통적인 생각은 잘못된 것이다. 시인/작가는 이미 글쓰기 과정 중에 자신의 원고 평가인, 출판자, 비평가, 소비자 들을 고려하게 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이들이 자신의 글에 어떠한 반응을 내 보일까를 꿰뚫어 보고 있다. 이것을 시인/작가 자신의 공간 감각 sense of ones place이라 할 수 있다<sup>25)</sup>. 출판자와 원고 평가인은 한 작품을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거부할 것인가에 의해서 텍스트에 일종의 검열 스탬프를 찍게 되며, 어떤 글이 문학적 여론의 영역에 기여하며 그 글이 어떤 자리에 자리잡게 되는가를 결정한다. 여기서 상징적 자산의 효력이 발생한다. 물론 출판자는 자신의 결정 과정 중에 비평가, 독자 그리고 다른 작가의 있을 수 있는 입장을 고려한다. 또한 비평가는 다시금 출판사와 시인/작가들로부터 칭찬받거나 비난받게 된다. 즉 이들 간에는 유기적인 상호 관계가 형성되게 되는 것이다.

문학의 장에서 모든 상호 행위는 정당한 문학을 정의하려는 힘의 투쟁이며 동시에 삶에 유용한 문학을 규정하려는 투쟁이다. 출판자와 비평가들은 성공을 거둔 시인/작가들을 기꺼이 받아들이며 그에게 자유스러운 공간을 제공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시인/작가에게 부여된 상

23) P.Bourdieu, op.cit., P.부르디외(문경자역), 『혼란을 일으키는 과학』(솔, 1994), pp.127-135. 현택수, 「문학의 장과 아비투스」, 『사회비평』 11호(나남, 1994) 그리고 K.M.보그달, 앞의 책, pp.180-191.

24) P.부르디외, 앞의 책, p.128.

25) K.M.보그달, 앞의 책, p.183.

징적 자산이 이익과 이익의 이익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문학상은 시인/작가의 명성을 해당상과 그 조직에 재투자하여 자산의 확대 재생산을 도모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상호 행위는 고급문학/저질문학, 제한된 생산/거대한 생산의 분립을 만든다. 고급 문학 영역에 관여하는 사람은 직접적으로 전환될 수 없는 상징적 자산에 주된 관심을 갖고 있다. 즉 상업적인 성공 여부를 여기서는 천한 것으로 여긴다. 이와 반대로 저급 문학 영역에서는 상업적인 성공을 추구하며, 상징적 자산은 부차적인 것이 된다. 출판자들이 대중 문학과 대중 수입이 위조된 아방가르드 문학 작품과 텍스트의 출판에 재정을 대주어, 그러한 문학은 자주 정당화된다.

이처럼 문학의 장은 문학적 담론을 생산하는 역동적인 기구이다. 시적 담론의 분석은 이러한 문학의 장의 비담론적 작용이나 연계를 무시할 수 없다. 담론은 항상 그것을 뒷받침하는 자본과 제도 그리고 권력과 함께 한다. 시적 담론의 분석은 이러한 모든 것을 포함할 때 보다 종합적인 방법론으로 자리하게 될 것이다. 물론 이러한 담론 분석이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다. 문학 연구에서 해석을 거부하는 일이 과연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가라는 반성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반인문주의적인 경향이 팽배해져가는 시점에서 해석의 거부도 또 다른 형태의 고갈을 파생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담론 분석을 통하여 기존의 문예학이 지닌 형이상적, 이상주의적 고립을 극복할 수 있는 계기가 주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 물론 이 한 편의 입문적인 글로써 이러한 방법적, 실천적 관심을 표명한다는 것은 지나친 일이라 생각한다.

